

제8회 한·일 산업보건 학술집담회에 다녀와서

순천향 의과대학
남택승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1984년 5월 24일에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당시 카톨릭의과대학 예방의학 주임교수) 조규상교수님과 이승한 교수님과 일본 노동과학 연구소장이신 SAITO(齊藤)박사와 경도 보건회 전무이사겸 진료소 소장이신 INUI(乾)박사의 노고로 창립총회겸 1차 학술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된 후 매년 교대로 한국과 일본에서 개최하면서, 학회대표로서 한국측에서는 조규

이 있었으나 별다른 문제없이 오늘날까지 많은 발전을 가져오게 되었다.

금번 8회 학술대회의 큰 변화는 일본측에서 일본 전국노동위생단체연합회와 한국의 산업보건협회간의 상견례와 더불어, 장차 21세기를 바라보면서 한·일간의 산업의학에 관한 상호정보교환과 학술교류를 위한 젊은 층들의 junior회를 결성하기로 한 것이 새로운 큰 변화로 볼 수가 있다. 이러한 변화와



상 산업보건협회장이, 일본측에서는 SAITO박사가 선출된 후 벌써 8회 학술대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한국측에서는 산업보건협회와 각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과의 유대관계가 잘 되고 있어 상호협조에 한국에서의 개최시 별 어려움이 없이 잘 진행되었고, 일본측에서는 노령이신 SAITO박사의 뒤를 이어 일본측 대표가 TACHI(館)박사로 교체되는 일

에 주된 성과는 학술발표회의 주제였던 '중소기업에 있어서의 집단산업보건관리'라는 주제가 우리나라의 산업의학과 근로자의 건강문제들을 연구 개발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선 일정별로 하나씩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기로 하겠다.

“산업보건협회와 일본전국노동위생단체연합회와의 교류회”

5월 16일. 일요일 전야제로서 일본 경도시내의 학술회의장인 평안회관(平安會館) 2층의 연회장에서 일본측 18명과 한국측 15명의 상견례가 있었다. 우선 일본측 대표간사인 TACHI대표와 한국측 대표간사인 조규상박사의 인사말이 있었는데 ‘한·일간의 이 순수한 학술 집담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그 빛이 양국 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근로자들에 비추어져 모든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지키고, 모든 건강문제를 다룰수 있는 집담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포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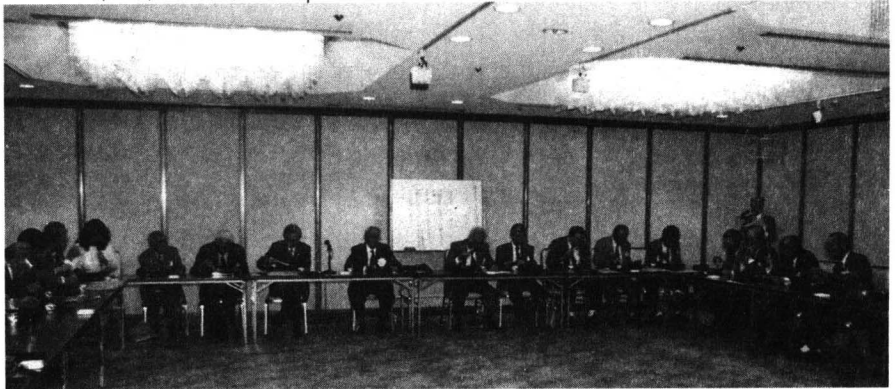
인사말 후 일본측의 전국노동위생단체연합회의 조직과 활동에 대하여 부회장인신 KAWASAKI(川田雄) 선생이 20분간 통역을 통해서 발표하였고, 다음으로 한국의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조직과 활동에 대하여 협회 최병수 전무이사가 20분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양국간의 각 단체들이 그 성격과 사업목적들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었으나 궁극적으로는 근로자들을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보호하고 더 나은 건강상태를 위함이 목적이었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었음을 찾아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일본자치외과대학의 KONO(河野)교수의 전국 노동위생단체연합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합정도관리문제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우리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도 1992년도 후반기에 정도관리 위원회가 조직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도관리와는 아직 많은 거리감이 있었으며 본인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문제점을 좀 더 진지하게 토의하고 정부보조금을 충분히 책정하여 빠른 시일내에 정도관리 제도가 확립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마지막 순서로 본인의 한국에서의 집담보건관리대

행사업에 대해서 15분간 소개가 있었다. 이 사업은 일본에서는 아직도 시행되지 않은 사업이며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 말에 법제화되고 최근에 시행세칙이 개정된 사업인데 이 내용의 소개후 일본측에서의 반응은 착잡한 것 같았다.

이상과 같은 4명의 설명회가 끝난 뒤 간단한 도시락과 맥주로 저녁식사가 끝났다.



매우 간단하고 경제적인 회합이었다. 이러한 점은 우리도 배워야 할 점으로 앞으로의 양국교류에서 예산의 차이를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아직 그 예산 규모의 차이가 너무 커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일학술집담회 청년부교류회”

다음으로는 주니어 모임에 관하여 몇 마디 소개하기로 하겠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84년에 시작된 이 학술집담회가 금년 8회 학회의 첫날인 5월 18일 40여명의 50세 미만의 젊은 산업의학도들에 의해 현재의 모임이 계속 발전되도록 하기위한 첫모임으로 형성되어 그 기대가 매우 고무적이며 주목되는 사건이었다.

이 모임의 시작시 한·일 양국의 대표간사인 TACHI박사와 조규상박사의 인사말씀이 있는 후 일본산업외과대학 HIGASI(東)교수의 사회로 한·일 산업보건 학술집담회의 일본측 간사와 한국측 간사의 간단한 인사말이 있었다.

상호 인사후 일본 경도대학 공중위생학 교수이신 IKEDA(池田)교수의 제의로 건배가 이루어졌고, 그 후 일본 나고야 대학(名古屋大學)의 HISANAGA(久永)강사가 일본에서의 산업의학의 현황과제라는

일본 노동성에서 발간된 자료들을 가지고 소개를 하였다.

계속해서 일본의 최근 산업보건의 추세 및 한·일 간의 협력의 중요성에 관하여 약 20분간 발표가 있었으며, 다음으로 한국측의 이세훈 가톨릭 의과대학교수가 한국에 있어서의 최근 산업보건 Issue로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보다 나은 산업보건 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중소기업 집단 산업보건관리, 산업보건교육 및 연수와 직업병의 작업관련 질환에 대해 20여분간 주제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한국측 참가자들부터 돌아가면서 자기의 근무처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분야, 향후 더 공부하고 싶은 분야에 대하여 발표하고 계속해서 일본측 주니어들의 순서로 발표가 진행되었는데 영어, 일어, 한국어 등 3개 국어가 총동원 되었으나 서로의 마음을 열어보이는 데는 약간의 언어장벽과 더불어 시간적인 제한으로 인해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향후 산업보건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양국 젊은 세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었다.

이와같이 한·일 산업보건 학술대회는 8회 째에 와서 앞으로 젊은 친구들에게 상속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산업보건협회와 일본의 전국 노동위생단체연합회와의 상호 긴밀한 정보교환 등으로 한·일 간의 산업보건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주에서 열린 제7차 대회에서는 중국측의 대표 8명을 초청한 바 있고 금년에도 3명의 대표가 참가한 사실이다. 아세아지구 산업보건학회가 별도로 ICOH산하에 조직되고 있으나 이 문제들도 앞으로 하나의 숙제로 남은 것으로 사료된다.

18일, 19일 양일간의 학술발표회는 예년과 같이 특이한 문제들은 없이 진행되었으나 금년의 주된 주제가 19일 오전에 있었던 중소기업에 대한 집단 산업보건관리문제에 대한 패널토의였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간의 체제와 노사간의 문제들이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형태로 발전하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 나름대로의 새로운 MODEL을 개발하여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본인은 확신하면서 횡수가 거듭될수록 양국간의 산업보건 일꾼들의 우애와 이해가 돈독해지리라 생각하며, 21세기에도 주니어모임이 중심이 되어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리라 기대하는 바이다.

끝으로 8차 학술대회에 우리측이 60여명이나 참가하였고 일본측에서도 그에 못지 않은 인원들이 참가하였으나 앞으로 한국에서의 개최시 일본측에서 더 많은 참가자가 있기를 바라며, 점차 이 학술집담회가 형식보다는 실속있는 학술집담회로 나갈 것으로 믿으면서 1993년 제8차 한·일 학술집담회 참가한 한 사람으로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

